

# 이현세의 만화 〈공포의 외인구단〉에 나타나는 정서적 과잉과 그 정치적 함의 — 1980년대 ‘청년-독자’들의 감정구조와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이준희\*

1. 1980년대 스포츠 붐과 프로야구 만화의 등장
2. 이현세의 만화 〈공포의 외인구단〉이 갖는 문화사적 의의
3. “강한 것이 아름답다”-등장인물들의 승리에 대한 맹목적 집착과 정서적 과잉
4. 훼손된 ‘신체-이미지’를 통해 극대화되는 정서적 과잉과 ‘과잉됨’ 속의 정치적 함의
5. “진실한 것이 아름답다”-결말에 나타나는 신화적 이상주의

## 국문요약

본고는 이현세의 만화 〈공포의 외인구단〉(1983)에 나타나는 정서적 과잉과 그 정치적 함의를 1980년대 ‘청년-독자’들의 감정구조와의 연관 속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만화 〈공포의 외인구단〉은 1980년대 초 공포정치를 통해 집권한 신군부의 회유성 정책의 일환이었던 ‘프로 야구’의 범국민적 인기와 이에 영향을 받은 ‘스포츠 만화’의 붐 속에서 등장한다. 이 작품에서 흥미로운 지점은 등장인물들의 대다수가 ‘승리’에 대해 과도한 집착을 보이며 정서적 과잉 상태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정서의 과잉 상태는 등장인물들의 극단적인 행동 및 훼손된 ‘신체-이미지’를 통해 시각적으

---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로 제시되면서 극적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독자들을 감정 과잉의 상태로 몰아넣는다. 사회의 밑바닥에서 갇은 수모를 겪었던 소외된 인물들이 영웅의 지위로 상승한다는 극적 설정은 1980년대 한국사회가 처한 정치적·사회적 현실 속에서 극심한 좌절과 소외감을 경험하고 있었던 젊은이들의 상승 욕망을 대리만족 시키면서, 당대 만화의 주 독자층이었던 '청년-독자'들의 광범위한 호응을 불러일으킨다.

이처럼 만화 〈공포의 외인구단〉에 의해 촉발된 '까치 신드롬'은 신군부의 공포정치로 인해 현실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나 여전히 사회의 변혁을 꿈꾸었던 '청년-독자'들의 감정구조와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그들의 정념/열정(passion)이 만화라는 상상계, 대중문화의 소비 속에 잠재화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또한 그것이 실제로 1980년대 후반 현실 정치의 변화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점에서 주요한 문화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1980년대, 스포츠 만화 붐, 이현세, 〈공포의 외인구단〉, 정서적 과잉, 까치 신드롬, 청년-독자, 감정구조)

## 1. 1980년대 스포츠 붐과 프로야구 만화의 등장

1980년대는 5.18 광주 항쟁으로 상징되는 민주화에 대한 대중들의 열망이 신군부 세력에 의해 무력으로 진압되며 시작되었다. 10.26 사태 이후 군부독재가 종식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대중들의 장밋빛 전망('서울의 봄')은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주도하는 신군부의 공포 정치에 의해 좌절된다. 삼청교육대를 비롯한 초법적 조치들이 사회 안정과 정의사회

구현, 국민순화 등의 명분으로 실시되고<sup>1)</sup>, 172개 정기간행물의 등록 취소와 언론기관의 통폐합 등 감시와 통제의 장치들이 시행된다.<sup>2)</sup> 일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국가 권력의 횡포<sup>3)</sup> 속에서 그에 정면으로 맞설 수 없었던 대다수의 국민들은 깊고도 짙은 무력감과 부끄러움 속에서 ‘정치적 우울증’을 앓게 된다.

신군부 세력은 이러한 공포정치의 시행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만과 저항, 정치적 우울증을 무마하기 위한 회유성 정책으로 1980년대 초반 컬러TV의 보급(1980.8.2), 야간통행금지 전면해제(1982.1.6), 중고생 복장 자율화(1983.3.2) 등 일련의 조치를 실시한다. 문화·체육 분야에서도 소위 ‘3S 정책(스크린·스포츠·섹스)<sup>4)</sup>으로 대변되는 유희 정책이 전면

1) 강준만, 『한국현대사산책: 1980년대편』 Vol.1, 인물과사상사, 2003, 238-253쪽.

2) 강준만, 『한국현대사산책: 1980년대편』 Vol.1, 인물과사상사, 2003, 211-216쪽; 258-271쪽.

3) 1980년대 초반 공권력에 자행된 강제연행·수감·고문 등의 국가 폭력은 일개의 개인이나 조직이 감당하기에는 가혹한 것이었다. 전두환 군부정권 초기 자행된 국가 폭력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한수산 필화 사건’을 들 수 있다. 이 사건은 소설가 한수산이 1981년 5월 중앙일보에 연재 중이던 〈육망의 거리〉라는 소설의 내용 일부가 군부(군인)와 대통령을 은근히 조롱하고 있다는 것이 발단이 되어 신문사 관계자 7명이 보안사 서빙고 분실로 연행, 3~5일간 혹독한 고문 및 심문을 받은 사건이다. 사건의 당사자들은 풀려난 직후 대부분 병원에 입원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었다. (강준만, 『한수산 필화사건』, 『한국현대사산책: 1980년대편』 Vol.2, 인물과사상사, 2003, 42-45쪽.)

4) ‘3S 정책’은 일반적으로 스포츠(Sports)·스크린(Screen)·섹스(Sex) 산업을 장려 또는 묵인하여 정치에만 쏠려있는 국민의 관심을 향락 면으로 돌리는 탈(脫)정치 및 우민화(愚民化) 정책을 일컫는다. 국민적 대화합을 이룩하고 민족문화의 선양과 국민 사기를 진작시킨다는 명목으로 개최된 ‘국풍(國風) 81’이라는 관제 행사(1981.05. 28.~06.01)는 전두환 군부정권의 3S 정책이 가동되는 첫 출발점으로서, 한국신문협회·한국방송공사(KBS)·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등 당시 군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던 어용단체들이 주관·후원한 이벤트성 축제였다. 이 축제는 외관상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및 ‘민족문화의 창달’이라는 명분을 띄고 있으나, 실상은 국민들로 하여금 1979~80년에 있었던 정권찬탈 및 민중학살(광주민주화 운동)의 기억을 잊어버리게 하려는, 모종의 의도가 숨어 있는 군부의 정치적 기획의 산물이었다. (손정목, 『5공 정권의 3S

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다. 제 5공화국은 ‘스포츠 공화국’이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다양한 스포츠 행사를 개최하여 국민들의 관심을 정치 이외의 분야로 분산시키고자 한다. 국민의 여가 생활을 ‘기획’하고자 하는 군부정권의 문화 정책 속에서 1981년 9월에 88서울올림픽의 유치가, 같은 해 11월에 86아시안게임의 유치가 확정되었으며, 1982년 3월에는 프로 야구, 1983년에는 프로 축구 및 프로 씨름 등이 출범하여 대중들의 광범위한 관심과 호응을 얻게 된다.<sup>5)</sup> 이와 같은 군부 정권의 체계적인 기획 아래 조성된 1980년대의 ‘스포츠 붐’은 대중문화계에도 영향을 미쳐 ‘스포츠 만화’, 특히 새로 출범한 ‘프로 야구’를 다루는 일련의 만화들이 대거 출간되는데 일조한다.<sup>6)</sup>

이현세의 〈공포의 외인구단〉(1983)은 바로 이러한 군부정권의 철권통치와 이를 회유하기 위한 정책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등장한다. 1980년대 초 희망의 봄이 핏빛으로 물든 억압과 우울의 시대 속에서 탈출구가 필요했던 대중들에게 “강한 것이 아름답다”고 외치는 이현세의 만화는 현실에서의 패배를 문화의 소비를 통해 상상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정

정책, 『도시문제』 39권 423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04, 112-114쪽.)

- 5) 신군부 정권은 집권 과정의 불법성을 은폐해야 하는 정치적 과제에 당면하여, 국민의 ‘탈정치화’를 위한 전략으로서 스포츠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그 위상을 강화시키고자한다. 정부는 스포츠 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고, 문교부로부터 체육부를 독립·신설하였으며, 대규모의 국제대회를 개최하는 국가사업(state project)을 1980년대 내내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심은정, 『제5공화국 시기 프로야구 정책과 국민여가』, 『역사연구』 제26호, 역사학연구소, 2014, 197-200쪽.)

- 6) 1970년대의 야구 만화가 청룡기, 봉황기 등으로 대표되는 고교야구의 인기와 연관되어 있다면, 1980년대 야구 만화는 1982년 출범한 ‘프로 야구’의 세계를 주요 무대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차이를 지닌다. 1980년대 새로 출범한 ‘프로 야구’의 세계를 만화로 그려 인기를 얻은 대표적인 작가 및 작품으로 이상무의 〈달려라 꼴찌〉(1982), 허영만의 〈제 7구단〉(1985), 그리고 본고에서 다루는 이현세의 〈공포의 외인구단〉(1983) 등을 들 수 있다. (고훈, 『한국 스포츠 만화의 서사구조 연구: 80년대와 90년대 작품을 중심으로』,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2015, 13-14쪽; 26-27쪽.)

신적 매개로 작용한다.<sup>7)</sup> “암울한 시대를 ‘힘’으로 돌파”해야 한다는 이현세 식의 영웅주의는 이 작품에서 “소외된 이들의 비상(飛上)”과 추락, “강한 남성성(男性性)의 추구”와 좌절 등으로 재현<sup>8)</sup>되면서 강렬한 정서적 과잉을 불러일으키는데, (본문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는 곧 대중들의 잠재된 정치적 열망을 해소할 수 있는 심리적 기제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특히, 1980년대 이현세 만화의 주 독자층이 사회에 막 발을 들여놓은 “20대에서 3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었다는 사실<sup>9)</sup>은 당대의 〈공포의 외인구단〉 신드롬이 담지하고 있는 시대적 정서의 이면을 당대의 사회적·문화적 상황과 연계하여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이현세의 만화 〈공포의 외인구단〉에 나타나는 강한 것에 대한 맹목적인 추구 등의 정서적 과잉이 1980년대 신군부의 철권통치에 억눌려 있던 당대 대중들의 무의식적 공포/저항 의식과 모종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가정 하에, 이러한 특징들이 갖는 정치적 함의를 1980년대 만화의 주된 향유층이었던 청년들의 감정 구조(structure of feelings)<sup>10)</sup>와의 연관성 속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

7) 1980년대 초 전두환 정권에 의해 추진된 스포츠의 활성화는 강준만의 말대로 “당시 5.18 광주 학살을 겪은 한국사회의 국민들에게 심리적 도피처나 한(恨)풀이의 수단”으로 작용한 측면이 다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연구자는 국가의 기획에 의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스포츠 정책과 달리 1980년대 ‘스포츠 만화’의 열풍과 대중들의 소비는 ‘강제적으로 조작’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 오히려 조직적인 국가 폭력이 자행되는 현실세계에서 대중들의 불가능한 꿈이 실현되는 ‘상상계’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치적으로 더욱 적극적인 독해가 가능하다고 본다.

8) 신광철, 『만화를 통한 신화 읽기: 〈천국의 신화〉(이현세 作)의 경우』, 『한신인문학연구』 제2집, 한신대학교 한신인문학연구소, 2001, 84-85쪽.

9) 강영희, 『이현세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사회평론, 1994, 247쪽.

10) 레이먼드 윌리엄스(R. Williams)에 의하면 ‘감정의 구조(structure of feelings)’는 사회적 성격이나 문화적 패턴이 아닌,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체험된 실제적 경험에 대한 감각”이다. 이는 그가 우리의 활동 중 가장 섬세하고 파악하기 힘든 부분에서 작동하

한국만화사의 맥락에서 이현세의 〈공포의 외인구단〉이 갖는 문화사적 의미를 간단히 살펴본 후, 3장과 4장에서 구체적인 텍스트 분석을 통해 위의 가설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 2. 이현세의 만화 〈공포의 외인구단〉이 갖는 문화사적 의미

한국만화사의 흐름에서 1980년대는 제 2의 르네상스로 일컬어진다. 1960년대가 소위 대본소로 불리던 ‘만화방’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 대상의 만화가 대량으로 생산·소비되던 한국만화 제 1의 전성기였다면<sup>11)</sup>, 1980년대는 만화방의 번창이나 1970년대 이래 다종의 스포츠 신문의 창간 및 잡지 보급률의 상승과 함께 이루어진 신문만화의 대중적인 수요 증가와 같은<sup>12)</sup>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만화 전문지’의 창간<sup>13)</sup>, 만

는, 이른바 “한 시대의 문화”를 표현하기 위해 고안해 낸 개념이라 할 수 있는데, 다소 추상적이던 이 개념은 후기로 갈수록 “사회적, 물질적 성격을 띠는 것이면서도 완전히 명료하고 규정지어진 활동으로 자라나기에 앞서 태아적 국면에 있는 일종의 정서 및 사고”를 포착해내는 “현재적인 실천적 의식”이자 “구조를 지닌 하나의 형성물”로 정교하게 표현된다. (레이몬드 윌리엄즈, 『理念과 文學』, 이일환 역, 문학과지성사, 1982, 91-93; 166쪽.)

11) 손상의, 『우리 시대 영원한 공포의 외인-이현세 연구』, 『만화 세상이 오고 있다』, 한국만화사, 1992, 221쪽.

12) 1968년 문공부 산하 ‘한국아동만화 윤리위원회’가 조직되어 만화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본격화되면서 만화는 아동과 청소년에 해악을 미치는 ‘6대 사회악’의 하나로 규정되고 정화의 대상이 된다. 1970년대 초 만화에 대한 사회의 도덕적 비난이 최고조에 오르면서 만화방을 통한 소비가 약화되고, 새롭게 창간된 신문·잡지를 통한 만화의 보급이 활성화되기 시작한다. 특히 1968년 창간된 ‘선데이 서울’과 1972년 창간된 ‘일간스포츠’의 등장은 아동과 청소년이 아닌 ‘성인층’을 대상으로 한 만화의 소비 패턴을 만들어냄으로써 ‘성인만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 (김종현, 『1980년대 한국 대중만화의 상상력』,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2010, 39-41쪽.)

13) 1980년대의 억압된 문화적 상황 속에서도 한국만화 제 2의 르네상스기를 도래하게 한 주요 요인으로 만화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만화전문지’의 창간을 들 수 있다. 1980년대 이전까지 한국만화는 아동용(교육용) 종합 잡지나 신문의 한 부분에 더부

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및 대중예술로서의 공인 등 질적 성장을 동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명실상부 한국만화 제 2의 전성기라 명명될 수 있는 것이다.

만화가 이현세(1954~ )<sup>14)</sup>의 〈공포의 외인구단〉은 이러한 한국만화 제 2의 전성기의 포문을 연 작품으로서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아동과 청소년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만화를 대학생을 포함한 성인들도 보고 즐길 수 있는 만화예술로 그 위상을 격상시킨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평가된다. 1983년 9월 10일부터 1984년 6월 10일까지 총 3부 30권(단행본)의 장편만화로 출간된 이 작품(㉞)은 수요층의 변화뿐만 아니라 서사구조, 그림체, 캐릭터, 현실의 반영 등 만화를 구성하는 내·외의 다양한 측면에서 당대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다.

우선, 서사구조의 측면에서 보자면 〈공포의 외인구단〉은 기본적으로 주인공 오혜성이 야구선수로서의 좌절과 실패를 딛고 성장하는 일대기적 구조(“불우한 성장배경-좌절-수학(훈련)-실패-수학(훈련)-성공”)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전형적인 스포츠 만화 서사구조에 기반하고 있다.<sup>15)</sup> 하지만 이러한 야구선수로서 오혜성의 일대기적 성장담은 첫사

살이의 형식으로 연재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1982년 10월 월간 『보물섬』의 창간을 시작으로 월간 『만화광장』(1985), 주간 『주간만화』(1987) 등이 연이어 창간되면서 만화만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담론의 장이 형성된다. (박인하·김낙호, 『한국현대만화사 1945-2009』, 두보북스, 2010, 139-140쪽.)

14) 이현세(1954~)는 한국만화의 중흥기라 일컬어지는 1980년대를 대표하는 만화가다. 1983년 연재하기 시작한 〈공포의 외인구단〉을 통해 전 국민적 인기를 얻으며 1980년대 만화 붐을 일으키는 기수로 활약한다. 이후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국경의 갈가마귀〉, 〈지옥의 링〉, 〈활〉, 〈머느리밥풀꽃에 대한 보고서〉, 〈아마게돈〉, 〈블루엔젤〉, 〈카론의 새벽〉, 〈남별〉, 〈천국의 신화〉 등을 꾸준히 발표하며 “한국 만화를 대중문화의 궤도에 올려놓은 일등공신”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주연, 『나의 서가 이야기-만화가 이현세』, 『출판저널』 373권, 대한출판문화협회, 2006, 74쪽.)

15) 고훈, 『한국 스포츠 만화의 서사구조 연구: 80년대와 90년대 작품을 중심으로』,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2015, 59-64쪽.

랑인 엄지를 사이에 두고 천재타자인 마동탁과 대결하는 애정 갈등의 멜로드라마적 구도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또한 손병호, 백두산, 최관, 하국상, 최경도 등 그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인물들의 “시련 극복담”<sup>16)</sup>과 더불어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스포츠 만화의 단순하고 직선적인 구조를 벗어나게 된다.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플롯의 양상을 띠게 되면서 〈공포의 외인구단〉은 총 3부 30권의 ‘장편’ 만화로 연재되고, 이는 3권 안팎에 불과했던 기존의 만화방 만화가 10권, 20권, 30권 등으로 구성된 ‘장편’의 형식으로 바뀌게 되는 계기를 제공한다. 그림체의 측면에서도 장편 서사만화의 방대한 스토리에 걸맞은 이현세 풍의 ‘극화(劇畵)’<sup>17)</sup>가 작품 발표 이후부터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유행하게 된다.

캐릭터의 측면에 있어서도 〈공포의 외인구단〉은 오혜성과 엄지, 마동탁이라는 인물들을 통해 애정의 삼각구도를 형성함으로써 이현세 본인의 만화를 비롯하여 1980~90년대 한국만화의 원형적인 모델을 제공한다. 특히 작품의 주인공인 까치머리의 반항아적 캐릭터 오혜성은 주류 사회에서 끊임없이 배척당함에도 불구하고 고독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 나간다는 점에서 반민주적 정치상황과 반민중적 경제구조 속에서 소외되어 있던 1980년대의 ‘청년-독자’들로부터 큰 공감을 얻게 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1980년대 식 아웃사이더의 표상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sup>18)</sup>

16) 고훈, 『한국 스포츠 만화의 서사구조 연구: 80년대와 90년대 작품을 중심으로』,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2015, 94-97쪽.

17) 극화(劇畵)란 일본에서 유래된 용어로, 아동용 잡지에 연재되던 월단위 만화와 달리 방대하면서도 짜임새 있는 스토리와 탄탄한 구성력, 실사에 가까운 캐릭터를 갖춘 만화를 지칭한다. 극화체는 이러한 극화(劇畵)에 사용되는 세밀한 그림체를 일컫는다.

18) 〈공포의 외인구단〉 이전까지 한국 만화 속의 영웅은 빼어난 기지로 사건을 해결하거나 타고난 힘으로 문제를 극복하는 ‘슈퍼맨 형’이었다. 반면, ‘오혜성’은 이러한 ‘만화적’ 영웅과 달리 사랑과 성공에서 모두 소외받은 인물로서 사랑에 실패하면서도 끊임없이 도전하는 인간형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비교적 현실적인 영웅의 모습을 띠고 있었다. (박인하·김낙호, 『한국현대만화사 1945-2009』, 두보북스, 2010, 142쪽.)

〈공포의 외인구단〉 단행본 완간(1984년)<sup>19)</sup> 후에도 까치 오혜성 캐릭터에 대한 대중들의 열광은 꾸준히 지속되고 이에 같은 캐릭터를 유사하게 변형·변주시킨 30여 편의 만화가 제작된다. 이른바 ‘까치 시리즈’로 불리게 되는 일련의 만화들은 199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출간되며 인기를 얻고,<sup>20)</sup> 이중 일부 작품은 TV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다.<sup>21)</sup>

또한, 단행본 만화의 성공은 1986년 〈이장호의 외인구단〉(㉔)이라는 실사 영화의 제작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만화 원작의 영화화가 흔하지 않았던 1980년대 중반의 한국영화계에서 이 작품이 당대의 스타감독이던 이장호에 의해 영화화되어 흥행에 크게 성공하고 만화 소재의 영화 제작 붐을 일으켰다는 사실<sup>22)</sup>, 그리고 영화 주제가로 수록된 김도향의

---

1980년대 초반 만화방을 출입하던 20대에서 3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오혜성 캐릭터에 쉽게 공감하며 감정이입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현실적 친근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19) 이현세의 〈공포의 외인구단〉 초판은 총 30만부 가까이 팔린 것으로 집계된다. 〈공포의 외인구단〉은 초판 발행(1983-84) 이후에도 화승, 고려원, 세주 등으로 출판사가 바뀌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총 1백만 부 가까이 팔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종희, 『대중문화와 영웅시대』, 문학수첩, 2010, 60쪽.)

20) 만화가 이현세의 페르소나로서 ‘까치’라는 반항아적 캐릭터는 1979년 그가 발표한 〈시모노세키의 까치머리〉에서 그 단초를 찾아볼 수 있으나, 그의 다른 만화에 영향을 주는 원형적 캐릭터로서 자리 잡게 된 것은 〈공포의 외인구단〉(1983)의 ‘까치 오혜성’부터라고 할 수 있다. (김성훈 외, 『한국의 만화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2010, 20쪽.) 〈공포의 외인구단〉에서 확립된 까치 캐릭터는 이후 〈까치와 고독한 영웅들〉(1986), 〈까치의 날개〉(1987), 〈철부지 까치〉(1987), 〈까치의 동지〉(1988), 〈까치 독사〉(1990), 〈뿌사리 까치〉(1995), 〈겨울까치〉(1996), 〈날아라, 까치야〉(1996) 등 이현세의 후속작 또는 아류작에서 비슷하게 변형·변주되어 등장한다.

21) ‘까치’가 등장하는 또 다른 만화 〈떠돌이 까치〉(1987)는 TV애니메이션으로 제작·방영(KBS, 1987.05)되어 당대 대중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는다.

22) 1986년 이장호 연출, 안성기·이보희·박암 주연으로 제작된 〈이장호의 외인구단〉은 28만 7천여 명의 관객을 동원해 그 해 흥행 랭킹 2위에 오르며, 한국영화계에 만화를 영화의 소재로 가져오는 계기를 마련한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편, 『문예연감-1986』

〈외인구단〉, 정수라의 〈난 너에게〉 역시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였다는 사실은 〈공포의 외인구단〉이 만화계뿐만 아니라 영화계, 가요계 등 1980년대 한국 대중문화계 전반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문화적 산물이었음을 보여준다. 〈공포의 외인구단〉 발간 이후 언론계·학계·문화계 등 제 분야에서 작품에 대한 비평이 다양하게 쏟아져 나왔다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한다.<sup>23)</sup>



㉠ 만화 〈공포의 외인구단〉(1983) 초판 표지



㉡ 영화 〈이장호의 외인구단〉(1986) 포스터

년도』, 한국문화예술진흥원, 279-282쪽.) 이 작품의 상업적 성공은 후속편인 〈이장호의 외인구단 2〉(1988)의 제작으로 이어진다.

23) 손상익, 『우리 시대 영원한 공포의 외인-이현세 연구』, 『만화 세상이 오고 있다』, 한국만화사, 1992, 222쪽.

### 3. “강한 것이 아름답다”-등장인물들의 승리에 대한 맹목적 집착과 정서적 과잉

이현세의 〈공포의 외인구단〉에서 흥미로운 지점은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대다수가 한결같이 ‘승리’에 대해 맹목적인 집착을 보인다는 점이다. 1982년 3월 출범한 ‘프로 야구’의 냉혹한 현실 세계를 충실히 반영하고자 했던 작자의 의도<sup>24)</sup>를 어느 정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승리’를 향한 인물들의 집념과 투지는 극적 설정에 있어서나 캐릭터의 이미지적 재현에 있어서 때로는 비정상적일 정도로 극대화되어 나타난다. 편의상 작품의 인물군을 태생적 조건(경제적·사회적 계급)에 따라 강자와 약자로 분류할 수 있다면, 전자로는 명예와 권력, 부를 가진 천재 타자로 등장하는 마동탁과 그가 소속된 유성구단의 감독 박광호, 재벌 구단주의 딸인 미선 등을 들 수 있으며, 후자로는 손병호 감독과 까치 오혜성을 비롯한 외인구단 선수들을 들 수 있다. 문제는 전자에 비해 후자의 ‘승리’에 대한 집착이 ‘과잉됨(excess)’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렬하게, 반복적으로 제시 된다는 점이다. 작품 속 손병호 감독에 의해 발언되는 다음의 대사들은 이를 함축적으로 잘 보여준다.<sup>25)</sup>

24) 이현세는 자서전에서 〈공포의 외인구단〉이 그의 대표작이 될 수 있었던 요인을 성인적 요소의 반영, 즉 음모와 권력의 암투가 판치는 프로 야구 세계의 생생한 극화에서 찾고 있다. 선과 악의 구분이 명확하게 갈리는 70년대 스포츠 만화와 달리 선과 악이 모호한, 끊임없이 ‘돈’이 오가고 ‘권력’ 간의 결탁이 이루어지며, 그러한 와중에 ‘음모’가 생기는 성인적 요소가 응집된 현실적 세계관이 아동들의 전유물이던 만화를 대학생을 비롯한 성인들도 즐길 수 있는 만화‘예술’로 재고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주현, 『신화가 된 만화가, 이현세』, 예문, 2006, 14-17쪽.)

25) 본고에서 인용문은 6권으로 재구성된 ‘이현세, 『공포의 외인구단』, 고려원미디어, 1986’을 따르기로 한다.

(가) 손병호: 이제 남은 건 너희들의 **비장한 결심**뿐이다. 두 팔 가진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실력을 키우기 전에 결코 살아서 이 섬을 나가지 않겠다는 결심을 해라. 또 다시 하루 선수라는 못사람의 경시 속에 살아가느니 차라리 **일류선수가 되기 위한 훈련을 하다가 죽겠다**고 해라.<sup>26)</sup> (밑줄, 강조-인용자)

(나) 손병호: 무엇보다 **강자가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엔 너희들 멋대로 산다. 누구도 너희들을 막을자는 없다.<sup>27)</sup> (밑줄, 강조-인용자)

(다) 손병호: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나오건 결국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소. 유성 선수들은 우리에게 전패를 한다 해도 연봉이 계속 지급되지만 온 **런 단 한번이라도 지면 단 한푼의 연봉도 받지 못하니까.**<sup>28)</sup> (밑줄, 강조-인용자)

후자의 인물들이 ‘승리’를 갈망한다는 것은 오혜성을 비롯한 외국인단의 선수들이 주류 사회로부터 차별 받거나 소외된 마이너리티들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어찌 보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극 중에서 ‘까치 오혜성’은 어린 시절 궁벽진 시골에서 술주정뱅이 아버지의 학대를 받으며 자라는데, 세상의 냉대와 모멸 속에서 자신을 아껴주었던 유일한 사람인 ‘엄지’에게 연정을 느끼고 그녀의 권유에 따라 야구 선수가 되기로 결심한다. 이러한 오혜성이 가난과 정서적 결핍 같은 소외감을 극복하고 ‘엄지’라는 궁극의 목표에 다가설 수 있는 방법, 즉 사회적 존재로서 자신을 확립할 수 있는 방법은 (야구에서의) 승리밖에 없는 것으로 설정된다. 이는 작은 키와 못생긴 외모로 구혼자에게 매번 무시당하는 ‘땅꼬마 최경도’, 자신과 어머니를 버리고 미국으로 떠난 아버지를 원망하는 ‘흑인 혼혈 하국상’, 일본 사회에서 외국인(재일동포)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외팔이 최관’, 소심한 성격 탓에 만년 2군 투수로 머물

26) 이현세, 『공포의 외국인단』 Vol.2, 고려원미디어, 1986, 283-284쪽.

27) 이현세, 『공포의 외국인단』 Vol.3, 고려원미디어, 1986, 395쪽.

28) 이현세, 『공포의 외국인단』 Vol.5, 고려원미디어, 1986, 7쪽.

러 있는 ‘조상구’, 큰 덩치와 느린 신경으로 프로선수로서 낙제점을 받은 ‘백두산’ 등 여타의 육체적·정신적 핸디캡을 지닌 외인구단원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항이다. 하지만 ‘승리’에 대한 그들의 갈망은 사회적인 성공을 통해 그들을 소외시키던 현실에 복수하겠다는 정도의 현실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불가능함에 대한 희구, 즉 신화적인 차원의 승리를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sup>29)</sup>



〈그림 1〉 ‘강한 것이 아름답다’는 지침 아래  
목숨을 건 지옥 훈련을 받는 외인구단

극중에서 손병호 감독은 적자생존의 프로 야구의 세계에서 방출된 선수들(만)을 규합해 외인구단을 조직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목숨을 담보로 한 지옥 훈련((가), 그림①)을 감행한다. 그는 “강한 것이 아름답다”는

29) ‘승리’에 대한 인물들의 과잉된 집착은 동시기의 다른 프로야구 만화들과도 변별되는 지점이다. 일례로 허영만의 〈제7구단〉(1985)에서 만년 꼴찌 팀인 샥스 팀의 구단원들은 승리에 대해 크게 집착하지 않거나 승리를 염원하더라도 그것이 인물의 행동에 뚜렷한 변화를 일으킬 정도의 영향력을 갖지 않는다. 그것은 팀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고릴라’를 영입한다는 설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작품이 갖고 있는 명랑만화(희극)적인 세계관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겠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주류에서 소외된 인물들을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 〈공포의 외인구단〉의 비극적 세계관은 과도한 파토스를 내뿜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지침((나)) 아래 선수들을 무인도에 가두어두고 학대에 가까울 정도의 강한 훈련을 통해 인간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는 최강의 팀을 만들고자 한다. 3년간의 지옥 훈련을 마치고 프로 야구의 세계에 돌아온 그는 구단주에게 후기 리그(50게임)를 포함한 한국시리즈에서 전승(全勝)을 했을 경우에만 연봉을 받겠다는 계약(다))을 하고, 이를 통해 외인구단의 선수들로 하여금 ‘불패(不敗)의 신화’를 써내려갈 것을 요구한다. 강해지지 못할 바에야 죽음을 불사하겠다는, 단 한 번의 패배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인물들의 ‘승리’에 대한 강한 집념은 이현세 특유의 거친 극화체를 통해 비장하게 묘사(그림②)되며 정서적 과잉을 드러낸다.



〈그림 2〉 ‘승리’에 대한 집념 속에서  
지옥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외인구단

#### 4. 훼손된 ‘신체-이미지’를 통해 극대화되는 정서적 과잉과 ‘과잉됨’ 속의 정치적 함의

이 외에도 외인구단 선수들의 ‘승리’에 대한 강한 집착에서 비롯되는 정서적 과잉의 상태는 작품 전반에 걸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 여기

서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러한 감정 과잉의 상태가 인물들의 훼손된 '신체 이미지'를 통해 가장 극대화된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작품 초반부 오혜성은 아버지가 구단감독으로부터 겪은 굴욕을 씻기 위해 또 엄지를 사이에 두고 경쟁하고 있는 마동탁과의 첫 대결에서 '승리'하기 위해 자신의 어깨 부상을 숨기고 완투(完投)를 함으로써 더 이상 투수로 서 활동할 수 없는 상태(그림③)에 이르게 된다. 이로 인해 오혜성은 서 부구단에서 방출되고, 지옥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후에도 타자로 활약할 수밖에 없게 된다. 최관 역시 재일동포라는 민족적 차별과 '외팔이'라는 핸디캡을 극복하고 프로 야구의 세계에서 인정받기 위해 신체적 학대가 수반된 손병호 감독의 지옥 훈련을 자처(그림④)한다. 조상구 역시 만년 2군 투수에서 벗어나 마동탁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기 위해 지옥훈련 도중 자신의 신체적 결함인 네 번째 손가락을 스스로 자르는 극단적인 행동(그림⑤)을 보인다.



〈그림 3〉 무리한 투구로 인해 부상을 당한 오혜성



〈그림 4〉 승리를 위해 신체적 학대를 감수하는 외팔이 타자 최관



〈그림 5〉 승리를 위해 손가락을 자르는 만년 2군 투수 조상구

그렇지만 이 작품에서 가장 강렬한 감정의 과잉 상태가 드러나는 장면은 역시 작품의 최종적인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는 오혜성과 마동탁의 마지막 대결 시퀀스라고 할 수 있다. 이 장면에서 서부구단(외인구단)은 후기리그 50연승에 이어 한국시리즈에서도 유성구단을 물리치고 3연승을 달리며 최종우승까지 단 한 게임만을 남겨둔 상태에 놓여 있다. 하지만 9회 초 3:0으로 경기를 리드해 가는 상황에서 오혜성은 남편인 마동탁이 한 번이라도 승리할 수 있도록 경기를 저달라는 엄지의 마지막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고의로 수비 실책을 남발하여 3:3 동점의 상황을 만든다. 외인구단원들을 포함한 관객들 모두가 서부구단의 승리를 기대하고 있는 절정의 상황에서 혜성은 마동탁이 친 강력한 타구를 정면으로 맞이받는 행동(그림⑥, ⑦)을 함으로써 그동안 힘겹게 쌓아올렸던 ‘전승 신화’의 기록을 스스로 깨뜨린다. 패배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육체를 위험 속으로 내던지는 오혜성의 자해(自害)에 가까운 행동은 극도의 긴장감을 발생시키면서 독자들을 ‘감정 과잉’의 상태로 몰아넣는다. “육체적 감동, 압도적인 느낌”으로 표현될 수 있는 이러한 강렬한 감정 과잉 상태, 파토스의 분출은 독자들로 하여금 연민과 두려움의 감정을 불러일으켜 종내 감정의 정화(catharsis)에 이르게 한다.<sup>30)</sup>

30) 멜로드라마에서 “극도의 감정적 속박으로 고통 받는 인물들” 또는 “히스테리나 신경 쇠약으로 쓰러지기 직전의 인물들”의 과장된 행위는 독자/관객들의 마음속에 강렬한 파토스를 만들어내고 종내 감정의 정화(catharsis)를 불러일으킨다. (벤 싱어, 『멜로드라마와 모더니티』, 이위정 역, 문학동네, 2009, 66-67쪽.)



〈그림 6〉 9회말 2아웃의 상황에서 패배를 자처하며 마동탁의 타구를 향해 달려드는 오혜성



〈그림 7〉 마동탁의 타구를 정면으로 들이받음으로써 실명(失明)하는 오혜성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떨거지들이 지옥과 같은 훈련을 거쳐 강해진 후 세상을 향해 칼을 빼든다’라는 복수(復讐)와 승리의 서사가 영웅서사의 한 양태<sup>31)</sup>로서 힘과 힘의 대결, 정복욕, 성취 등으로 대변되는 스포츠 만화라는 남성 취향의 대중예술에서 흔히 사용되는 설정<sup>32)</sup>이라고 할지라도,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공포의 외인구단〉의 인물들이 보여주고 있는 승리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 강한 것에 대한 추구,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정서적 과잉과 파토스의 분출은 다소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sup>33)</sup> 강영희는 이러한 정서적 과잉을 두고 “당시의 현실에서 계층

31) 신화에서부터 시작하여 영웅소설을 거치면서 발전한 전통적인 영웅 서사의 일대기적 구조(탄생-고난-수학-성장-대결(승리))는 스포츠 만화에 이르러서는 여러 면에서 축약 변형되어 나타난다. 주인공 신분의 내력, 신이한 출생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영웅 서사와 달리 ‘주인공이 스포츠 종목에 입문해서 특정 목표를 마무리하는’ 것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스포츠 만화는 ‘성장’과 ‘대결(승리 또는 실패)’에 관련한 구조만이 집약적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고훈, 『한국 스포츠 만화의 서사구조 연구: 80년대와 90년대 작품을 중심으로』,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2015, 51-64쪽.)

32) 이영미, 『한국대중예술사, 신파성으로 읽다』, 푸른역사, 2016, 526-527쪽.

33) 제프리 노웰 스미스(Geoffrey Nowell Smith)는 이와 같은 과도한 극적 사건에서 비롯되는 감정의 과잉(excess) 상태, 과도한 파토스의 분출을 ‘멜로드라마적 과잉’이라 지칭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멜로드라마가 조장하는 심적 에너지와 감정들은

적인 근원을 지닌 대중의 소외감<sup>34)</sup>이 만화에서 “특수하고 개별적인 소외감으로 변형”되어 나타난 것이라 진단한 바 있는데, 만화가 소비되던 1980년대 초반의 정치적 현실을 염두 한다면 이러한 정서적 과잉은 계급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를 넘어선 차원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하게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포의 외인구단〉의 인기가 “1980년대 초반, 우리 사회에 만연했던 깊고도 짙은 무력감과 권력의 원시적 횡포에 대한 무의식적 공포에 기반하고 있다”고 언급한 김창남의 의견은 참조할 만한 것이다.<sup>35)</sup> “가장 미천하고 보잘 것 없는 밑바닥”의 인물들이 “영웅의 지위로 상승”한다는 설정이 1980년대 초 한국사회가 처한 정치적·사회적 현실 앞에서 극심한 “좌절과 소외감을 경험”하고 있던 “다수의 이삼십대 젊은이들”의 상승 욕망을 대리만족 시키고 있다<sup>36)</sup>는 그의 견해는 1980년대를 관통하는 〈공포의 외인구단〉 신드롬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한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의 요구와 조화될 수 없는 것들로서 억압된 채 이야기 속에서 충분히 해결되지 못한 채 작품 전반에 걸쳐 신경증적으로 표출된다. (벤 싱어, 『멜로드라마와 모더니티』, 이위정 역, 문학동네, 2009, 65-66쪽.)

34) 강영희에 따르면 1980년대 이현세 만화의 주요 독자인 “20대에서 30대 초반 대중의 의식구조”는 새롭게 형성되기 시작한 모순된 현실 속에서 ‘욕망’과 ‘소외감’이 부풀려져서 극도의 ‘경쟁심리’를 품고 있었다. 80년대 들어 70년대 고도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이 낳은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젊은이들의 욕망의 수위가 급속도로 높아짐과 동시에 반민주적인 정치상황과 반민주적 경제구조에 의해 이들이 경험하는 소외감 역시 극도로 커지면서 그 상호작용 속에서 현실에서의 경쟁 심리가 극대화되었다는 것이다. (강영희, 『이현세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사회평론, 1994, 246-249쪽.)

35) 김창남, 『영웅없는 시대의 영웅신화, 이현세의 까치』, 광대원 외 지음, 『한국만화의 모험가들』, 열화당, 1996, 72쪽.

36) 김창남 역시 강영희와 마찬가지로 1980년대 초 한국 사회에서 20-30대 젊은이들이 극심한 좌절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다고 진단하며, 그 요인으로 ①폭력적이며 억압적인 정치 현실에서 오는 정치적 좌절감과 무력감, ②천민적 대량 소비자본주의의 경쟁 구조 속에서 경험하는 소외감을 제시한다. (김창남, 『영웅없는 시대의 영웅신화, 이현세의 까치』, 광대원 외 지음, 『한국만화의 모험가들』, 열화당, 1996, 73-75쪽.)

트를 제공한다. 즉, 5.18로 상징되는 군부의 국가 폭력 앞에서 정치적으로 무력할 수밖에 없었던 ‘청년-독자’들의 정념/열정(passion)은 불패의 신화를 쓰는 ‘외인구단’이라는 반항아적 캐릭터들에 대한 투사를 통해 해소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1980년대 초 한국사회의 정치적인 것에 대한 무관심과 냉소 같은 정념의 부재(apathy) 현상이 탈-정념화(무관심) 또는 정동의 쇠퇴(무감각)으로 쇠퇴하고만 것이 아니라, 대중문화의 소비 속에 잠재화(potentializing)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일정한 의의를 지닌다.<sup>37)</sup>

김창남 외에도 1980년대 〈공포의 외인구단〉 신드롬과 당시 20대-30대 초반의 젊은이들의 감정 구조가 모종의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는 견해는 후대의 평론이나 신문기사에서도 다수 발견된다. 만화평론가인 박인하는 “5공화국은 스포츠를 통해 대중을 조작”했지만 “대중들은 ‘공포의 외인구단’을 통해 전복을 꿈꾸었다”고 보았으며<sup>38)</sup>, 문학평론가인 김경현 역시 “유신정권이 몰락하고 또 다른 군부가 독재를 행했던 80년대”에 “끓어오르는 민중운동의 열기와 프로스포츠 시대라는 쾌락의 열정이 결합해 이현세의 『공포의 외인구단』 등 극단적인 스포츠 극화의 주인공들을 탄생”시켰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sup>39)</sup> 홍지민 또한 이현세의 〈공포의 외인구단〉을 “당시 사회상과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며 “억눌린 젊은이들의 감성을 대변하며 신드롬을 일으킨 작품”으로 평가하고 있다.<sup>40)</sup>

이렇게 보았을 때 스포츠 공화국의 국가적 기획 속에서도 ‘청년-독자’

37) 권명아, 『음란과 혁명』, 책세상, 2013, 46쪽.

38) 박인하, 「공포의 스포츠 공화국 빚낸 이현세作 ‘공포의 외인구단’」, 『경향신문』, 2004.8.27.

39) 김경현, 「상투성과 친절함: 자본주의 시대의 한국, 영화, 그리고 대중」, 『문학동네』 13권 2호(통권 47호), 문학동네, 2006.

40) 홍지민, 「80년대 주름잡던 ‘공포의 외인구단’ 추억 넘어 전설로」, 『서울신문』, 2012.4.22.

들, 즉 대중들의 정치적 변혁의 욕망은 사라진 것이 아니었으며, 그 변혁의 에너지는 〈공포의 외인구단〉이라는 ‘초월적인 힘으로 현실을 초극’하는 영웅서사 및 ‘무적(無敵)의 외인구단’이라는 신화적 인물들에 대한 열광으로 그들의 몸속을 흘러 다니는 ‘정동’의 형태로 잠재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현세의 만화 〈공포의 외인구단〉 출간 및 영화 〈이장호의 외인구단〉 흥행 이후 젊은이들 사이에서 오혜성의 머리 스타일이 유행하며 ‘까치’ 신드롬을 실감하게 했다<sup>41)</sup>는 기사는 군부정권의 정치적 억압 속에서 심리적으로 억눌린 젊은이들의 변혁의 욕망이 까치 오혜성을 비롯한 당대 민중의 삶을 대변하는 영웅적 캐릭터들에 대한 열광 속에 잠재되어 있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 5. “진실한 것이 아름답다”-결말에 나타나는 신화적 이상주의

이상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과 같은 등장인물들의 승리에 대한 맹목적 집착은 〈공포의 외인구단〉의 결말부에서 주요 인물들이 파국을 맞게 되는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다. 작품 후반부, 후기리그 50연승이라는 ‘불패의 신화’를 써나가는 서부(외인)구단의 한국시리즈 최종 우승을 저지하기 위해 마동탁과 그가 속한 유성구단의 선수들 역시 지옥 훈련을 감행한다. 하지만 손병호의 탁월한 용병술에 의해 그러한 투지가 꺾이면서 마동탁은 광기에 휩싸이게 되고 엄지는 그를 구원하기 위해 혜성을 찾아가 일부러 저주기를 부탁한다. 이를 받아들인 혜성은 전승(全勝) 신화를 코앞에 둔 마지막 시합에서 앞서 살펴보았듯이 마동탁의 타구를 자신의 얼굴로 들이받는 고의적 실책으로 패배를 승인하고, 실명

41) 『젊은 남성 “까치머리” 유행-영화 〈외인구단〉 헤어스타일까지 히트』, 『경향신문』, 1987.3.31.

(失明)을 하게 된다. 그 결과 혜성에 대한 죄책감으로 엄지는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며, 전승 신화에 집착하던 손병호 감독은 마지막 시합이 패배로 결정된 직후 심장마비로 사망한다.

이렇듯 이 작품에서 까치 오혜성과 외인구단의 비극은 혜성이 손병호의 “강한 것이 아름답다”는 명제에서 원래 품고 있었던 “진실한 것이 아름답다”라는 명제로 다시 돌아서면서 발생한다.<sup>42)</sup> “난 네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라는 초반부의 대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혜성이 야구라는 세계에 몸담게 된 것, 그리고 그 세계 안에서 강자가 되고자 한 것은 모두 엄지가 좋아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강자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목숨까지 걸었던 혜성이 강자의 자리가 엄지의 진실한 사랑과는 무관한 것임을 깨닫는 순간, 그는 “강한 것이 아름답다”는 명제를 미련 없이 버리고 원래의 “진실한 것이 아름답다”라는 명제로 회귀한다.<sup>43)</sup>



〈그림 8〉 우여곡절 끝에 재회하여 사랑을 이루는 엄지와 혜성

〈그림 9〉 “진실한 것이 아름답다”는 약자의 논리로 돌아선 후에야 이뤄진 사랑

42) 강영희, 『이현세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사회평론, 1994, 235쪽.

43) 강영희, 『이현세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사회평론, 1994, 234쪽.

이처럼 “강한 것이 아름답다”는 강자의 논리에서 “진실한 것이 아름답다”는 약자의 논리로 돌아서는 순간에 혜성은 ‘현실’에서 패배하지만, 역설적으로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엄지와의 사랑(혜성이 원래 품었던 ‘이상’)을 이루게 된다. 작품의 마지막 장면에서 실명을 한 혜성은 현지의 도움을 받아 요양원에 입원해 있는 엄지를 만나 재결합(그림⑧, 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된다.

이상 이현세 만화 〈공포의 외인구단〉의 결말에 나타나는 “신화적 이상주의”는 자본주의적 삶이 깊숙이 침투되어 있는 오늘날의 시점에서 다소 순진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진정성의 추구, 순수성에 대한 열망<sup>44)</sup>은 1980년대 초반 정치적·사회적인 현실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청년-독자’들, 그러나 사회의 변혁을 꿈꾸었던 20대에서 30대 초반의 젊은이들의 감정 구조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또한 그들의 정념/열정(passion)이 만화라는 상상의 세계를 통해 표출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회적·문화적 의의를 지닌다. 더군다나 이러한 잠재된 정동의 흐름이 1980년대 후반 현실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데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사실<sup>45)</sup>

44) 만화 〈공포의 외인구단〉의 결말에 나타나는 ‘진정성의 추구, ‘순수성’에 대한 열망은 오늘날의 신자유주의적 삶이 도래하기 이전, 1980년대만이 가질 수 있는 에토스(ethos)이기에 당대 대중들의 심금을 울릴 수 있었다. (김홍중, 『진정성의 기원과 구조』, 『마음의 사회학』, 문학동네, 2009, 17-25쪽.)

45) 강영희는 이러한 신화로서의 대중문화 속 이상주의가 현실의 하위에서 현실의 모순에 대해 (소극적으로) 불복(不服)하는 심리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한다. 그녀에 따르면 이러한 소극적 불복심리, 즉 반성적 자의식은 적극적 전망을 결여한 채 자기파괴적이고 퇴행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으로 해서 일단 체제의 현상유지에 순응한 것으로 비치지만, 계기만 만나면 언제든지 적극적 변혁의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는 강렬한 현실부정의 심리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녀는 이 작품의 수용층인 20대에서 3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1987년 6월 항쟁에 대거 참여한 사실을-충격적인 역사적 사건들이라는-‘계기’에 의해 대중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던 반성적 자의식이 최고도로 증폭되어 현실의 표면 위로 돌출된 사례로 보고 있다. (강영희, 『신화로서

이현세의 만화 〈공포의 외인구단〉에 나타나는 정서적 과잉과 그 정치적 함의 / 이준희 243

은 〈공포의 외인구단〉을 계기로 촉발된 까치 신드롬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정치적 함의를 지닌 주요한 문화사적 사건으로 기록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

의 대중문화와 대중의 반성적 자의식』. 『한길문학』 제13호, 한길사, 1992, 245쪽.)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이현세, 『공포의 외인구단』 Vol.1-6, 고려원미디어, 1986.  
——, 『공포의 외인구단』 Vol.1-10, 학산문화사, 2009.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편, 『문예연감-1986년도』,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동아일보』, 『경향신문』, 『서울신문』.

### 2. 논문 및 단행본

- 강영희, 「신화로서의 대중문화와 대중의 반성적 자의식」, 『한길문학』 제13호, 한길사, 1992, 230-245쪽.  
고 훈, 「한국 스포츠 만화의 서사구조 연구: 80년대와 90년대 작품을 중심으로」,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2015.  
김경현, 「상투성과 친절함: 자본주의 시대의 한국, 영화, 그리고 대중」, 『문학동네』 13권 2호(통권 47호), 문학동네, 2006, 1-11쪽.  
김중현, 「1980년대 한국 대중문화의 상상력」,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2010.  
박종천, 「만화와 신화의 경계를 넘어서-이현세의 '천국의 신화'를 중심으로」, 『한신인문학연구』 제6집, 한신대학교 한신인문학연구소, 2005, 53-80쪽.  
손정목, 「5공 정권의 3S 정책」, 『도시문제』 39권 423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04, 103-122쪽.  
신광철, 「만화를 통한 신화 읽기: <천국의 신화>(이현세 作)의 경우」, 『한신인문학연구』 제2집, 한신대학교 한신인문학연구소, 2001, 81-102쪽.  
심은정, 「제5공화국 시기 프로야구 정책과 국민여가」, 『역사연구』 제26호, 역사학연구소, 2014, 197-237쪽.  
이주연, 「나의 서가 이야기-만화가 이현세」, 『출판저널』 373권, 대한출판문화협회, 2006, 73-77쪽.  
  
강영희,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사회평론, 1994.  
강준만, 『한국현대사산책: 1980년대편』 Vol.1-2, 인물과사상사, 2003.  
곽대원 외, 『한국만화의 모험가들』, 열화당, 1996.  
권명아, 『음란과 혁명』, 책세상, 2013.  
김성훈 외, 『한국의 만화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2010.  
김종희, 『대중문화와 영웅시대』, 문학수첩, 2010.

- 김홍중, 『마음의 사회학』, 문학동네, 2009.
- 레이몬드 윌리엄즈, 『理念과 文學』, 이일환 역, 문학과지성사, 1982.
- 벤 싱어, 『멜로드라마와 모더니티』. 이위정 역, 문학동네, 2009.
- 박인하·김낙호, 『한국현대만화사 1945-2009』, 두보북스, 2010.
- 손상익, 『만화 세상이 오고 있다』, 한국만화사, 1992.
- 이영미, 『한국대중예술사, 신파성으로 읽다』, 푸른역사, 2016.
- 이주현, 『신화가 된 만화가, 이현세』, 예문, 2006.

## Abstract

A Study of Emotional Excess and Its Political Implications  
in Lee Hyeon-se's comic book *An Outsider Club of Terrors*  
- in connection with the structure of feelings  
of Young Readers in 1980s

Lee, Jun-Hee(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emotional excess and its political meaning in Lee Hyeon-se's comic book *An Outsider Club of Terrors*(1983) in connection with the structure of feelings of young readers in 1980s.

The comic book was published amid the popularity of professional baseball, which was a part of the South Korean military dictatorship's policies that were enacted in the early 1980s, and amid a sports-comics boom. The majority of the book's characters have excessive attachments to victory and display emotional excess. The display of emotions is presented visually and emotionally through the extreme actions of the characters and their corrupted body images; the display encourages a state of emotional excess in readers. When the book was published, the comic's dramatic setting and the rise of its characters, who are alienated from society, often satisfied the increasing desires of young people, who were the main readers of the contemporary comics and experienced intense frustration and alienation from the political and social realities of the Korean society in the 1980s. The comic inspired the widespread response of those young readers.

Similarly, the Kkachi syndrome, which was triggered by the comic book, is closely linked to the structure of feelings of young readers, who felt defeated in the real world but dreamed of transforming society. This phenomenon can be noted as a major cultural event in that it shows the young readers' affects/passions were latent with the consumption of popular culture; Actually the phenomenon partly contributed to real political changes in the late 1980s.

이현세의 만화 〈공포의 외인구단〉에 나타나는 정서적 과잉과 그 정치적 함의 / 이준희 247

(Key Words: 1980s, sports-comics boom, Lee Hyeon-se, An Outsider Club of Terrors, emotional excess, Kkachi syndrome, young readers, structure of feelings)

논문투고일 : 2017년 10월 10일

심사완료일 : 2017년 11월 3일

수정완료일 : 2017년 11월 13일

게재확정일 : 2017년 11월 15일